

인연 (人然)

- 교감, 그리고 성장

햇살이 스르륵 손에 잡힐 듯한 투명한 창 안에는 봄이 떠오른다. 창은 햇살의 온기를 말해주는 듯 따뜻하다. 창을 통해 해가 뜬 듯 스쳐 지나가고 창을 따라 내려앉은 해는 달빛이다. 창이 열리고 해가 질 때면 해는 다시 달빛을 배달해 준다.

해는 낮에 우리를 이끌어 내느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데, 이 따스한 햇살은 잠깐 동안 우리를 스르륵 말려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계절을 만끽하듯 눈을 간질인다. 창을 통해 비친 푸른 바다와 눈부시게 비치는 햇살은 우리를 새로운 환상의 세계로 스며들게 하는 듯하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숨을 쉬며 바다를 오가는 것이다. 노을이 질 때까지도 바다가 보이며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햇살의 이쪽과 저쪽을 살피면서 마음은 이 순간을 햇살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흘러버리고 미워하려고만 한다.

햇살과 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괴기스러운 조화는 신비로운 현상에 가깝다. 햇살의 이면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숨어 있고, 모든 것을 함축하는 정신의 씨앗 역시 감성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카페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커피 향을 내뿜는다. 흔들리지도 않는 햇살과 고요한 바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고요와 평화. 그 속에서 작은 조각 그림처럼 자유로이 피어나는 그림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 한다. 카페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방향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잠든 사이에 창을 통해 그 흔적을 보고있고, 햇살은 잠깐도 혼자 잠들지 않는다. 나는 그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퍼지는 햇빛을 목놓아 부른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나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손을 뻗는다. 창을 통해 밖을 보니 오후의 햇살이 저만큼 투명하다. 창을 통해 비추는 햇살이 내 손을 잡았다. 싹이 돋은 솜털 같았다. 싱그러운 햇살에 문득 떠올랐고, 내 마음속에 한 계절이 초록으로 변변히 느껴졌다.

봄의 산은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그에 스며든 신록의 초록빛은 희망과 온기를 안겨 준다. 우리의 여름도 이와 같아서 꿈이 있는 것 같았고, 희망의 불씨가 되어 피워내는 새 희망의 빛을 여름이 주고 돌려주었다. 여름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아름답다.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의 열기를 채워주어 위로해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그런 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는 날이어서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맑은 햇볕 아래서 잠들고 싶어진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습한 바람과 대화가 없다. 가을바람이 등을 간질이며 자꾸만 스산하게 부는 것을 보며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우울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한다. 나에게 가을은 잔인하다. 추운 가을에 홀로 지내는 외로움은 나의 우울함이다. 이 가을, 홀로 떠난 여행은 슬픔으로 다가온다. 가을의 빗소리는 햇빛을 토해내며 내 마음을 온통 잡아채 준다. 혼자 온 여행은 외로움을 동반한 차가운 여

행 때문이다. 가을에 해를 보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가을의 밤, 가을의 시
인들을 데리고 찾아 떠나는 문학의 거리로 나섰다. 동행이 있다. 둘은 함께 늙어
가고 있지만 글 한 편을 쓰고 있다. 동행의 언어에는 삶의 이야기와 한 장의 문
장이 담겨 있다. 나는 이 하늘의 맑은 노을을, 새들과 바람, 집을 지키는 짐승,
밥을 먹는 새들과 밤새 안녕을 약속하는 새끼 고양이의 이름을 써넣었다. 이런저
런 애기와 안부들을 나누며 손을 뻗어 노을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어둠
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밤하늘에 걸려있는 온갖 빛 조각들. 그 조각들에서
삶의 고통과 상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 고통을 '슬픔'이라고 말
하고 싶다. 슬픔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보다 이해하고 받아들
이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슬픔이다. 슬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 슬픔은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다. 이 슬픔과 고통은 인생 전체에 존재한다. 사
랑의 고통도 그 의식이요, 고통을 감당할 노력도 이 생의 과정이 아닐까 한다.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공유할 줄 아
는 사람들이다. 그런 삶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담은 고백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며 그들과 내가 겪는 상황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해
결해나가는 방법을 안다. 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을 하며 그들과 내가
겪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마치 겨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봄별이 혹독해도 단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을 봄
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설렘으로 서툰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은
봄이다. 봄이 오는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도 같다. 봄은 싱그러운 흰 꽃과도

같다. 우리 삶에도 봄과 벚꽃이 가득하다. 흰 꽃은 '메마르고 아프지만, 봄의 동산' 이다. 돌아오는 봄은 아름다움이고 구원이다.